

입법회의의장(NLA), 곧 있을 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모든 측에게 당부함

입력 2018.02.15(13.30)



2018년 2월 15일 - 입법회의의장은 곧 있을 총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모든 측에게 당부하면서 입법회의가 하원의원선거법안과 상원임명법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입법회의가 충분한 법률 심의를 통해 총선거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펏 위챗촌라차이 입법회의의장은(NLA) 곧 있을 총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고 사회 각 층에 당부하였다. 또한 총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논쟁들을 막기 위해 입법회의가 선거 관련 법률들을 신중하게 심의하였고 입법회의 총 인원의 3분의 2인 248명 중 166명이 동의해야 하기에 하원의원선거법안과 상원임명법안이 부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3측 공동위원회가 신중히 검토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지기에 2개의 법안을 부결시킬만한 명분이 없으며 만약 법안을 부결하게 되면 입법회의가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설명을 해야 한다.

한편 3측 공동위원회는 헌법 초안위원회와 관련 독립기관들이 제시한 논쟁 사항들만 개정함으로써 총선거 기간을 다시 연장토록 하는 법률개정은 없을 것이다.

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

레누 케마판야/기자/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

솨자이 통쿤/번역